

기획

독도, 머나먼 하지만 가까워야하는 우리 섬

독도 방문기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어떤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쩡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 2016년의 ‘촛불시위’ 등. ‘독도’도 그러하다. 대한민국 동쪽 끝. 명백히 우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서슬어린 야욕에 화가 나는 땅. 그러면서도 항상 굳건히 버텨주는 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를 흥얼거리며 3월 31일~4월 1일, 9개 대학 학보사 기자들은 독도아카데미와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

3월 31일 밤 11시 30분, 심야버스만 쓸쓸히 다니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9개 대학 학보사 기자들이 모였다. 식어버린 참치김밥을 옥여넣으며 탑승한 버스는 차가운 밤공기를 헤치고 울릉도행 여객선이 출항하는 울진 후포항으로 향했다. 하늘이 돕지 않는 것일까. 서울을 나설 때부터 추추추적 내리던 빗줄기는 휴게소에 도착할 때 즈음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울릉도도 못 들어간 적이 있다”라는 독도 아카데미 탐방 단장의 협박 아닌 협박을 들으며 울진 후포항에 도착했다. 밤새 고속버스에서 새우잡을 자며 후포항에 도착하니 자욱한 안개가 우리를 맞았다. 비린내 가득한 횃집에 둘러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매운탕을 한 숟갈 떴다. 손가락 안에는 칼칼한 매운 맛과 비 냄새가 담겼다. 항구에 왔구나, 독도에 가는구나. 비로소 실감이 났다.

다행히 날씨는 곧 개였다. 울릉도로 향하는 배를 탈 수 있었다. 그렇게 독도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희망도 잠시, 곧 미친 듯이 흔들리는 배는 지금까지 겪어본 어떠한 교통수단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파도가 철썩일 때 마다 내 속도 함께 철썩었다. 화장실 앞은 뱃멀미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 천지였다. 배는 두 시간을 흔들려 울릉도에 도착했다. 울릉도에 발을 딛자 날씨는 거짓말처럼 화창해졌다. 햇빛에 부서져 반짝이는 바다와 화산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풍당당한 성인봉이 어울려 기묘한 풍경을 이뤘다. 쓰린 속과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넘어가지 않는 도시락을 먹으며 바로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독도로 향하는 배를 탔다.

울릉도에 올 때보다 파도가 잔잔했다.

독도는 어려운 섬이다. 맑은 날씨가 아니라 파도가 조금이라도 친다면 정박하지 못해 ‘삼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일 년에 45일에서 65일정도만 독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 시간 쯤 지났을까. “와아! 독도다!” 환호성이 들렸다. 뱃전으로 나가보니 어렵פות이 독도가 보였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배가 독도 동도 선착장에 닿자 모두들 한 마음으로 박수를 쳤다. “충성!” 독도 경비대의 우렁찬 환영 경례에 비로소 독도에 온 실감이 났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독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단 20분이다. 독도가 허락한 공간 또한 독도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다. 독도에는 약 60여 종의 식물들과 160여 종의 조류들이 살고 있다.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외부인은 동도 선착장 근처만을 둘러볼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모두 둘러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주어진 곳에서 독도를 최대한 느끼리라 다짐했다.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형언할 수 없는 감동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인 독도는 250만 년 전 바람과 파도에 의해 동도와 서도로 나뉘어졌다. 이 때 형성된 많은 바위들은 입을 벌여 지게 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그 많은 바위들은 각기 이름을 갖고 있다. 선착장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부채바위는 ‘새들의 고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그 말처럼 갈매기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부채바위 뒤에는 촛대바위가, 고개를 오른 쪽으로 조금만 돌리면 솫돌바위가 있다. 촛대바위와 솫돌바위 사이에는 ‘독도 이사부길’이 있다. 신라시대 우산국을 정벌하여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든 이사부. 일본에 끌려가서도 끊임없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했던 안용복.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지키는데 기여한 홍순철. 이 길을 걸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 명 한 명을 되새기다 보면 ‘대한민국 동쪽 땅 끝’이라는 비석이 있다. 살면서 우리나라의 땅 끝을 밟을 일이 얼마나 될까. 비석을 보자 독도에 오기까지 힘들었던 여정들을 잊어버릴 만큼 수식할 수 없는 어떠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걸어



▲(위) 독도 전경 ▼(왼쪽) 통행 제한구역을 경비 중인 독도 경비대의 모습 (오른쪽) 부채바위에 떼를 지어 모여있는 갈매기 (사진=박지영 기자)

온 길을 되돌아 나오자 독립문 바위와 서도가 보인다. 그나마 지형이 완만한 동도와 달리 가파른 서도는 아예 관광객이 다녀볼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이유로 동도에는 경비 초소와 등대에 약 30명이 거주하고, 서도 주민숙소에는 약 4명이 거주하고 있다.

독도를 모두 담을 수 없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삭이기 위해 독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독도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독도 수비대원들이었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군인 대신 의무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경찰의 존재는 독도

가 분쟁지역이 아닌, 명백한 우리나라 땅임을 대외에 증명한다. 관광객들은 각자 들고 온 위문품을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전해주며 사진을 찍었다.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다가가서 힘들지 않느냐고 슬쩍 물었다. “힘들진 않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신산하죠.” 이번엔 관광객에게 다가가 독도에 오시니 어떠냐고 물어봤다. “아휴~ 친구들이랑 중국도 갔었어. 근데 독도는 훨씬 예뻐. 독도를 진작 못 온 게 아쉬워.” 친구들과 함께 관광 온 임인순(68) 씨는 소녀처럼 해맑게 웃었다. 가

족과 함께 독도를 놀러온 박지민(18) 양은 “독도수비대 오빠들이 너무 멋있었다”며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탑승하셔야 합니다. 열려 탑승하세요.” 짧은 만남은 승선 재촉과 함께 끝이 왔다. 울릉도로 돌아가는 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암괴석들이 만드는 풍경,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 풍부한 천연가스가 여전히 탐이 나서였을까. 일본은 3월 31일 또 다시 도발을 했다. 하지만 이제 느낄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주장은 독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2017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안내

2017 창의적종합설계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대상: 공학계열 학부생 (최소 2인 이상, 타학과간 구성 가능)

▶신청방법

- 기간: 2017.3.20.(월) ~ 4.20.(목)
- 방법: 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icee@khu.ac.kr)
- 신청서 다운로드: 공학교육혁신센터 공지사항 참조 (abeek.khu.ac.kr)

▶활동내용

- 창의·융합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직접 시제품으로 제작해보는 프로그램
- 산업체 연계 공과대학 종합설계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할 시 기업 현장방문 및 연담 등이 제공될 예정(공지사항 참조)

▶지원혜택: 시제품 제작 재료비, 경진대회 참가경비 지원 및 우수팀 해외 연수 기회 제공

▶시상내용

| 구분 | 시상내용 | 부상 |
|---------|--|---------|
| 교내 경진대회 | 금상, 은상, 동상 (경희대학교 총장상) | 상장 및 상금 |
| 거점 경진대회 | 금상, 은상, 동상 (성균관대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상) | |
| 전국 경진대회 |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청장상, 후원기관장상 | |

•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 일정

- 제안서 심사: 2017.05.10.(수)
- 교내 경진대회: 2017.6월
- 창의적 종합설계 거점 경진대회: 2017.9~10월 중 (교내 입상자 대상)
- 창의적 종합설계 전국 경진대회: 2017.11월 중 (거점대회 입상자 대상)

▶문의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031-201-3254 또는 icee@khu.ac.kr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2017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안내

- 1. 훈련대상: 전역 1~6년차 예비군 전원
- 2. 장 소: 금곡예비군훈련장
- 3. 일 정

| 훈련일자 | 인원(명) | 소속 |
|----------|-------|--|
| 계 | 2,706 | |
| 5. 10(수) | 603 | 교직원,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법학), 특수대학원(경영/공공/관광/교육/법무/언론정보/문화복지), 음악대학, 무용학부, 미술대학 |
| 5. 11(목) | 542 | 정경대학 |
| 5. 12(금) | 547 | 이과대학, 호텔관광대학 |
| 5. 15(월) | 506 | 경영대학(경영학과), 자율전공학과 |
| 5. 16(화) | 508 | 간호과학대학, 경영대학(회계세무학과),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

※ 훈련 명부는 붙임 참고

※ 훈련 안내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으로 공지

4.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 1)이동수단: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 2)출발장소 / 시간: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 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 1) 시내버스: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 2)전철: 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 3)개인차량: 악도참조

5. 참고사항

- 가. 간부 출신 7년차 이상, 병 출신 7~8년차, 당해년도 전역자는 미부과
- 나. 학과 · 학년 구분 없이 동시심사 및 성씨별(7개나 다 순) 학급편성
- 다.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불량자 결석처리
- 라. 신분증 미소지자 결석처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 여권, 학생증 기계 인식불가)
- 마. 지각자 귀가조치 → 반드시 08시 50분까지 부대정문 도착
- 바. 교육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부대 1일 수용인원, 버스대수 등의 사유로 일정변경 절대불가
- 사. 결석 및 지각으로 인하여 고발/법집행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 아. 훈련편성(예비군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누락된 예비군은 연대본부로 전화 또는 방문요망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급여서비스 및 급여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차.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불가
카. 2014년 1월 1일부터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유예자) 학생훈련 제외, 병무청(동원) 또는 지역 일반훈련 대상
타.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부대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사용

6. 기타

가.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준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나.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 수신을 위해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포털사이트 '예비군' 검색)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폰번호 반드시 수정

7. 금곡(미금)훈련장 약도



8. 찾아가는 방법

- 시내버스 이용
 - 청량리/휘경동: 30번, 천호동: 23/1-4번, 강변역: 93번
- 전철 이용
 - 중앙선 덕소/용문행(도농역) 하차 2번 출구 위의 버스로 환승
- 개인차량(내비게이션) 이용
 - 경기도 남양주시 이매동 284-1번지 or 금곡훈련장/중앙아파트 검색
- 전화번호
 - 221연대: 031-505-8337(교황) 연대동원과 또는 3대대동원과
 - 경희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02-961-0148~9
 - ※ 반드시 8시 50분까지 금곡훈련장 부대정문에 도착